



FTA 시대 물류유통 과제

The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FTA on the Logistics&Distribution

오늘날 국제관계를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바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주의를, 유럽연합(EU)과 NAFTA 등 지역별 연합은 지역주의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위기와 기회가 함께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한미 FTA의 체결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상대국 사업자에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재주재 의무부과금지 등과 같은 4가지 일반적인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큰 변화 속에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물류환경은 화주기업의 글로벌 물류서비스에 대한 욕구변화, 화주기업의 욕구 고도화에 대한 물류기업의 대응의 필요성 증대,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물류시장에서의 다양한 기업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다각화추진 등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통과 관련해서는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외적으로 완전개방 이후 속속 등장한 신업체, 특히 마트 또는 할인



김 응 진

(사)한국물류학회 회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회 포착 필요

점 등으로 통칭되는 대형유통점들이 우리 나라 유통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 유통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요 업태인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시장에서 위치는 할인점, 편의점 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쇼핑이 성장하고 케이블 TV의 보급증가와 이에 따른 TV 홈쇼핑의 점유율 확대도 유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러한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증가는 지역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기반을 잠식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붕괴시킨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양국간에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FTA는 물류유통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FTA라는 새로운 현실로 다가온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때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위기가 될 것이다.

정확한 현실의 이해와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사)한국물류학회에서는 지난 달 7일 'FTA 시대 물류 유통의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식품의 RFID를 활용한 재고관리, 한미 FTA에 따른 택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 탄약시스템 RFID 적용 방안, 공급망 관리상 파트너 관계 형성에서 신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업적 차량 경로관리의 발전적 기법, FTA 시대를 대비한 물류기업의 코퍼티션 전략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었다.

또한 해외 주요 물류기업 서비스를 비교하는 등 FTA시대 국내 물류유통 산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도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